

종부세 개편안 요약

2008.11.14

정홍식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기획재정부는 11월 1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였음.

주요 쟁점	내용
세대별 합산과세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u>위헌</u> 을 결정, 현재는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힘.
거주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밝히며, <u>헌법불합치</u> 판결을 내림.
종부세 9억 하향 검토	기존 정부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을 손질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던 과세기준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정부는 올해 안에 6,000억원의 부동산세를 환급할 계획이며 올해 납세자도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따라서 2008년도 신고 세수 감소액이 약 5,000억원(예상)임을 감안하면 총 1조 1,000억원이 종부세 대상자중 약 20만명(2006년 12만명, 2007년 16만명중 중복자 제외)에게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이번 개편안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사실적 종부세 폐지와 재산세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반대의견이 있는 등 이번 개편안의 국회통과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세대별 합산과세 등에 의한 과세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으로 고가 미분양 아파트 분양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제한적으로 부동산 유동성 증가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은 될 것으로 판단됨.

- * 상기 게재된 테마 및 종목, 업종 등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매수 추천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는 발간일 현재 상기 종목에 대하여 주식 및 주식관련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